

치매노인 가구 가스 사고 예방 ‘한뜻’

전주시-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 가스안전장치 무료설치 지원 협약

전주시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손잡고 치매노인 가구의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보급하기로 했다.

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강대기)는 9일 전주시보건소에서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과 강대기 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 가스안전장치 무료설치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가스 사고 예방을 통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고품층 안전 복지 향상과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공동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주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는 9일 전주시보건소에서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과 강대기 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 가스안전장치 무료설치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오는 9월 중 전주시에 거주하는 치매노인 100가구에 가스안전장치(타이머

류)를 무료로 설치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이날 중 대상

자 동의 및 현장 확인, 설치 안내 등을 실시했으며,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사용법교육 및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치매 환자의 경우 일상에서의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사업이 가정 내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이외에도 치매안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환자 가족 및 보호자 돌봄부담분식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및 정용 팔창 배부 △인재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노인을 보호하고 치매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정원드림프로젝트’ 추진 박차

전국 5개 권역서 추진… 전주권역 5개소 새 정원 조성

정원도시 전주 곳곳이 대한민국 정원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실습공간으로 제공된다.

전주시는 정원 분야 사회진출을 꿈꾸는 청년에게 현장 밀착형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정원드림프로젝트’가 전국 발대식과 전주권역 발대식을 통해 설계안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국비 100%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전주를 포함해 서울과 대전, 세종, 평택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추진된다.

시는 지난 2023년에 이어 두 번째 공모에 선정됐으며, 올해는 정원 관련 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거쳐 △지라다 △동실 운영단 △초월 △숨결 △결정 등 전주권역 최종 5개 팀(25명)을 선

정했다.

시는 올해 ‘플라네이터 가든: 정원으로 회복되는 도시’ 주제에 맞춰 서곡 경관녹지 2곳과 평화 경관녹지 2곳, 월드컵광장 남부 1곳 등 총 5개의 실습 정원을 계획하고 조성·관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정원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배울 기회를 얻게 된다.

이들이 조성한 정원은 향후 시에서 운영하는 도시숲정원관리인과 인근 거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원드림프로젝트’가 전주시정원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주시를 비롯해 정원 전문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미래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건강 취약계층 안전한 여름나기 돕는다

전주시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강화… 전문인력 통해 폭염 대비 건강수칙 등 안내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가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장애인 및 재가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을 활용해 건강 취약계층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혈압·혈당 등 기초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여름철 건강관리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보건소는 또 전주시상지청과 협력해 전주지역에 폭염 영향예보가 발표되면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취약계층에게 폭염 기상정보에 따른 대응 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온열질환 예방법도 안내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과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특히 고열압과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위로 인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들은 취약계층에게 경로당 등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안내하고, 예방 물품(보냉백, 인건네이)을 제공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올해 폭염이 길어짐에 따라 건강 취약계층이 온열질환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가 주택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 전세 사기 예방 주택 안심계약 상담 운영

호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랑애큐 열무김치 나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동장 정문구)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민철)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세대 32가구에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애큐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치 나눔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통장협의회와 협조를 받아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 2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직접 구입해 손질한 열무와 얼갈이 등 재철 채소를 정성껏 버무렸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대상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여 안부 인사와 함께 담근



김치를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나눴다. 강민철 호성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무더운 여름에도 걱정 없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 김치를 준비했다”라며 “작은 정성으로 우리 이웃들과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혁신동 지사협, 저소득 가정 위한 여름나기 물품 지원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주민센터(동장 안성자)와 혁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상훈)는 지난 8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여름나기 물품(선풍기, 냉각 이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난화로 인해 열대야를 보내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냉각 이불과 선풍기를 준비했으며, 물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상훈 혁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저소득층은 특히나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원



사업을 통해 집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